

바위에 새긴 선사인들의 정신세계

한국역사민속학회 엮음 《한국의 암각화》

선사시대 고대인들은 바위에 그림을 새겨 꿈을 기원했다. 스칸디나비아나 내몽고, 아무르강 유역, 유럽과 시베리아 등 전세계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발견되는 사슴과 고래, 양 물고기 따위의 바위그림은 선사인들의 손길을 생생히 전한다.

여러 각도의 연구 시도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울주 천전리 서석 암각화가 처음 발견된 이후 반구대, 고령 양진동과 안화리, 함안 도항리, 영일 인비리, 칠포리, 영천 보성리, 여수 오림동, 안동 수곡리, 영주 가흥동 등 경북지역 일대에서 다양한 암각화가 발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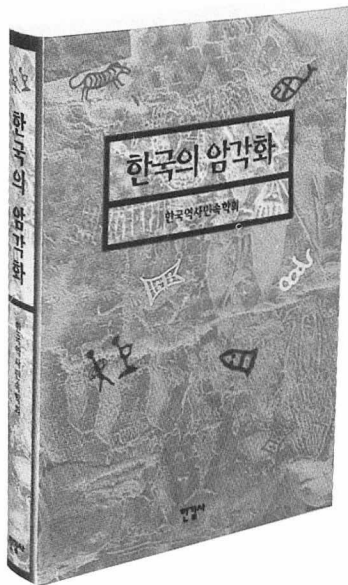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암각화는 울주 대곡리 반구대와 천전리 서석 암각화를 꼽는다. 선사시대 이래 울주 지역은 해안지대의 풍부한 물산이 모이고 흩어지는 교통상 요지였다. 또 울산만은 고래와 물개가 나타나는 지역중 하나다. 이 일대는 신석기 시대에서 삼국시대까지의 유물유적이 밀집된 곳이기도 하다.

반구대 암각화는 고래 물개 바닷거북의 바닷짐승과 사슴 호랑이 멧돼지 개 등 짐승, 사람얼굴과 배의 모습이 새겨 있다. 반면 천전리 암각화는 주로 기하무늬 위주의 암각화로 청동기시대의 농경사회와 관련돼 있다고 본다. 그 내용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각도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논거가 미흡한 상태다. 암각화가 그려진 곳의 성격에 대해서도 주술적 의례, 교육의 터, 동물 수호를 위한 곳 장소, 재생과 풍요를 위한 정례적 의례장소 등 여러가지 해석이 있다.

한반도만의 독특한 형태

영일만 일대 특히 칠포리 곤륜산 일대의 암각화는 국내 최대의 암각화 유적지이자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형태를 지닌다. 석검, 석촉이 상징화되어 그려진 우리나라에만 보이는 유일한 암각화 형태이다. 석검의 검파식에서 형상을 빌려 여자 성기와 결합된 상징성을 나타낸 그림은 한반도 남부지방에서만 독자적으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한형철)

한편 한국 암각화의 원류로서 연해주 방



면보다는 중국 북부 내이명꾸 지역이 더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사람 얼굴모양에서 물방울 형태가 많은 점, 수곡리 말굽형에서 보이듯, 함께 새겨진 사람발자국과 꽃모양이 일치한다는 점 등을 공통점으로 꼽는다.(임세권)

특히 중국의 암각화와 우리 암각화의 비교를 통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에서는 채회암화(주홍색 안료로 그림)가 많이 발견되지만 한반도에는 채회암화가 발견된 예가 없어 같은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데 무리가 있다.(이형구)

신면, 가면, 방패형 등 사면의 신체, 신의 형상화를 나타내는 암각화를 '패형 암각'이나 부르는데 이는 대체로 동일한 신(新)관념과 세계관을 지닌 집단들이 있었던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면이 신과 접촉하는 데 필수적인 무복을 사다리꼴로 상징화한 것. 패형암각 주위의 깃털이나 방울은 신을 부르는 방울, 혹은 신체의 신성함을 나타내는 빛의 표현으로 파악된다. 때로는 사면의 신성성, 신면(신화적인 인간), 악령으로부터 보호하는 갑옷이나 방패로 형상화되기도 한다.(이상길)

선인들의 역사기록

암각화를 통해 신석기 시대 이후 청동기 시대의 신앙의례도 엿볼 수 있다. 고인돌시대의 암각화는 대체로 농경의 풍요와 생산을 기원하며, 청동기 시대 석검 석촉은 남성신을, 여성의 신체를 기하학적으로 묘사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한 검파형 암각화는 여신상으로 조각된다. 검파형 암각화는 생식력과 곡물번식을 기원하는 농경의례를 의미한다. 칠포리에서 발견된 남녀생식기결합의 모양 역시 풍농을 기원하는 의례 수단으로 보인다. 대부분 기하학적 암각화는 농경의 풍요다산을 의미하는 동시에 당시의 생활양식과 생활예술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송화섭)

또 암각화는 그 생김새와 유형에 따라 문화 시대성이 나타난다. 동물과 사람, 어로와 수렵활동을 주제로 삼은 그림은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식량생산을 목적으로 한 경제활동을 나타낸다. 검모, 기하, 방패무늬 등 '기물도형'은 고도의 관념적 신앙세계, 종족번성과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사의 의례행위로 여겨진다. 기마행렬, 항해 등 생활을 사실적으로 생동감 있게 새겨놓은 그림은 그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암각화는 그림으로 남긴 선인들의 역사기록으로서 선사시대 정신세계와 물질생활 의식구조를 파악하는 데 더없이 귀중한 자료다.

—김지원 기자

《한국의 암각화》

이 책은 아직까지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 암각화연구를 새롭게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한국역사민속학회가 95년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개별적으로 조사 연구한 것을 암각화의 기원, 편년, 신앙 등의 주제별로 나눠 종합적으로 살폈다.

책에는 <울주 대곡리 천전리 암각화>(전호태) <영일 경주지역의 암각화>(한형철) <패형암각의 의미와 그 성격>(이상길) <한국암각화의 편년>(장명수) <한국암각화의 원류>(임세권) <한국암각화의 신앙의례>(송화섭) <한반도 암각화와 중국암각화와의 비교>(이형구) 등 7편의 글이 실렸다.

각 암각화의 문화적 성격에 따른 편년의 검토라든가 중국암각화와의 비교검토 등 연구범위를 확대한 것은 의의가 크다. 특히 울주 반구대, 천전리 등 알려진 암각화 외에 새롭게 발견된 내용까지 사진과 함께 실어 일반인의 이해도 높이고 있다.

한길사/A5신/354면/15,000원